

論述考查 實施 方案의 探索

朴 鍾 烈*

(本協議會 評價管理部長)

I. 序 論

내년부터 실시되는 論述考查制의 方向은 文敎部가 제시한 指針에 따라 각 大學이 自律적으로 결정하여 더욱 具體化되었다. 각 大學이 제시한 論述考查制의 實施方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藝·體能系는 제외하고 文科·理科로 나누는 大系列 出題로 총점 중 反映比率는 약 4% 정도로 反映點數는 약 20점 정도이나, 辨別幅은 10점 정도이다. 問項數는 대부분 1문항이며, 90分 동안에 千字 정도의 分量이다. 問題類型은 資料提示型으로 출제하여 擴大反應形態로 응답하도록 하고, 分析的인 方法으로 探點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人의 探點委員들의 探點結果를 平均하여 最終點數로 정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時間에 일정한 主題로 일정한 分量의 글을 써서 自身의 의견을 說得力 있게 제시하는 것은 실로 뼈를 깎는 아픔의 過程이라 하겠다. 思考하고, 남의 글을 읽고, 자신의 思考를 體系化하고, 講義를 하는 것이 本業인 敎授들에게도 글쓰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內申制·學力考查制·面接制와 같은 三重苦를 겪고 있는 大學入試生들에

게 論述考查制를 부과하게 된 理由는 大學入學學力考查에서 四肢選擇型 문항만 출제함으로써 파생되는 短點을 보완하고 大學入試에 있어서 大學의 自律性 伸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初·中等敎育의 質的 改善에도 間接的인 影響을 주고자 하는 데도 그 理由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論述考查는 이와 같은 目的 외에도 과거의 入試制度에서 나타난 또 다른 短點들을 보완하고 보다 選拔制度의 合理化를 꾀할 수 있는 方向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文敎部가 제시한 方針과 각 大學이 제시한 方案을 分析하여 차제에 補完하여 實施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II. 論述考查制의 意義

論述考查란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應試者들의 高次的인 精神能力, 즉 表現力·組織力·綜合力·推理力·創意力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特定敎科目的 內容에 구애받지 않는 脫敎科的이고 汎敎科的인 素材 중에서 主題를 선정하여 論文型 형태로 출제하여 探點하는 考查를 말한다. 이와 같은 論述考查制는 몇 가지의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몇 가지의 問題도 內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기정화된 現實이지만 論述

* 筆者는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敎育學科 助敎授로서 現在 本協議會에 파견 근무중임.

考查制의 肯定的 意味와 아울러 否定的 意味를 차제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1. 論述考查制의 肯定的 意義

첫째로 論述考查의 必要性은 社會的 要求의 反映이라 하겠다. 一般社會의 대부분의 活動은 意思疏通에 의하여 수행된다. 의사소통이 狀況에 따라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사용하든 그 內容의 明瞭性·論理性·簡潔性은 중요하다. 따라서 自己의 思考를 表現하는 方法을 안다는 것과 思考의 內容을 풍부하게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은 一般社會에서 重要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두번째로 大學의 學生選拔權의 強化를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開放과 自律이라는 개념이 社會一角에서 강하게 네두되면서 專門性和 自律性을 그 存在의 當爲로 하는 大學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自律적으로 學生을 뽑지는 못하지만, 選拔考查의 一定量만큼 각 대학의 참여폭을 擴大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세번째로 論述考查制 도입은 學生選拔의 質的 改善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겠다. 學力考查의 選擇型은 採點上의 客觀性和 信賴性이 높고, 問項의 內容妥當성이 향상되며, 包括的인 能力의 標本이 가능하고, 統計的 分析이 용이한 長點이 있는 반면에 單純 想起力을 측정할 誤謬가 있으며, 推測 要因을 제거하기 어렵고, 表現과 創意的 機會가 制約되는 등 몇 가지 短點이 있었다. 論述型 試驗은 이를 補完하고 評價方法의 質的 改善을 꾀하는 데 그 意義가 있다.

네번째로 論述考查를 통하여 初·中等教育의 質的 改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大學의 入試制度는 韓國 教育 全般을 운바로 主導해주는 電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論述考查制의 도입은 下級學校에 日記 쓰는 法을 習慣화시키고, 讀書量을 增大시키며, 學父母들로 하여금 作文指導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조장하고 있다.

다섯째로 論述考查制는 學生들의 行動을 綜合적으로 測定할 수 있도록 補完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人間行動을 知的·情意的·心動的 行動으로 구분하여 볼 때, 知的 行動의 下等精神機

能은 學力考查로, 高等精神機能은 論述考查로 측정하고, 情意的 行動은 內申制를 통하여, 心動的 能力은 體力章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完備한 入試制度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2. 論述考查制의 否定的 意味

첫째로 論述考查制는 高等教育의 機會를 받아야 할 適切한 人間들을 選別하는 裝置인가 하는 의문이다. 未來社會를 先導할 수 있는 엘리트集團을 선별하는 制度的 裝置로서 論述考查制는 그 機能을 다할 수 없다. 그 이유는 20점 정도의 배점 중 약 10점 정도의 辨別力을 가지고 高等精神機能을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物學的·心理學的·社會學的·教育學的으로 教育可能한 人間을 選別하는 데는 그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論述考查의 採點 結果에 대하여 社會에서 그 客觀性和 信賴度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명 정도의 採點委員들이 300명 정도를 채점하는 것은 人間으로서 限界性이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經驗에 의하면 20~30명 정도의 採點자는 評價準據의 相對的 基準을 찾는 데 활용되고 100명 정도를 채점하면 벌써 採點의 合理的 基準은 흐트러지는 것이 一般的인 事實이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論述考查制는 初·中等教育의 正常化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學生들은 內申制를 위하여 高等學校 教育에 充實하여야 하고, 또 15~16개 敎科를 學力考查에서 試驗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論述考查를 합하면 敎科가 하나 더 附加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論述考查의 부가는 下級學校 教育課程運營에 高等精神機能을 학습하는 機會를 제공하기보다는 第3의 敎科를 부과하는 부담을 안겨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敎科를 入試에 반영한다면 폭 넓은 知識을 습취할지 모르지만, 그 知識이 깊이 있는 참다운 知識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네번째로 論述考查는 진실로 大學의 自律性 伸張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50年代까지 自由放任의인 自律性을 보장받던 大學運營이,

'60年代부터 統制的 自律性으로 변모되어 왔다. 이제 '80年代부터 自律과 開放이라는 흐름 속에서 論述考查의 총 배점이 약 20점 정도 중 약 10점 정도의 변별성을 둔다고 해서 大學의 진정한 自律性과 專門性이 찾아지는가 하는 점이다. 大學의 問題는 大學人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대학의 學生選拔은 大學人 스스로가 그 問題를 認識하고 問題의 核心的인 根源과 原因을 치유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論述考查制는 과연 父母의 社會·經濟的 影響을 入學選拔考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論述考查는 한 人間의 高等精神機能을 제는 道具이다. 그러나 論述考查는 서술형태로 진술해야 하므로 地域性·社會性·人口性 등과 같이 文化的 差異에서 오는 論述의 差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단순히 文化失調라는 점으로 간주하여 點數의 差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울러 採點者, 즉 教授集團의 價値가 採點上에 배제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現行 入試制度는 눈치作戰·배짱志願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論述考查라는 制度를 통하여 이를 是正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눈치작전이나 배짱지원은 本人의 能力과 適性을 고려하지 않고 先合格을 고려한 入試志願方法이라 하겠다. 이것은 學校에서 文·理科로 구분한 學校教育과 大學入學 學力考查의 人文·自然系의 구분이 결과적으로 入試生들의 選擇 가능한 學校와 學科의 幅을 넓혀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論述考查에서도 大系列 區分을 選擇하게 되므로 이는 더욱 조장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論述考查制는 肯定的인 意味와 아울러 否定的인 意味를 동시에 內包하고 있으므로 論述考查를 실시하는 學校의 論述考查施行委員會·出題委員·採點委員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Ⅲ. 論述考查制의 實施 方向

論述考查制의 實施 方向을 文教部가 제시한 大學入學論述考查 實施指針과 각 大學의 '86학년도 大入論述考查 施行方案(3.23 발표)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出題 方向

出題委員은 特定敎科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學問分野에서 최소 3명 이상의 適正人員을 選任한다. 출제하는 主題의 性格은 특수분야의 知識·經驗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生活周邊에서 常識的이고 普遍的이며 一般的인 素材로 선정하여 論理的인 陳述이 최대한 허용되도록 한다.

小系列 및 學科別 出題는 지양하여 大系列 또는 中系列別 出題를 권장하였으나 대체로 文科·理科로 나누어 구분되는 大系列別 出題를 채택하고 있다. 問項數는 1~2개 정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考查時間을 감안하여 大學의 自律에 맡기고 있으나, 一線大學에서는 대부분 1問題를 出題하며 3문제까지도 고려하는 大學이 있고 어느 대학은 3問 중 1問 選擇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여러 개의 問項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選擇하여 답하는 것은 지양하기를 권하고 있다. 考查時間은 대부분 90분이나 최소 60분에서 최대 100분에 이르기도 한다.

答案의 分量은 主題性格, 論述形式, 所要時間, 問項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答案分量은 대부분 800字 내지 1,000字이나 최소 500字에서 최대 1,000字까지 분포되어 있다.

問項形式은 대학의 自律決定에 一任하고 問項末尾에 時間·分量·點數·採點基準을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問題類型에 있어서 대학에서는 單獨課題型과 資料提示型 중 대체로 資料提示型을 선택하고 있다. 學生들의 答案反應은 自由度의 擴大를 위하여 擴大反應形態와 制限反應形態 중 擴大反應形態를 選好하고 있다.

2. 採點 方向

採點委員 全員이 각각 模範答案을 작성,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 採點基準을 설정하고, 採點方法과 節次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하는 충분한 機會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採點方法은 採點單位에 따라 分析的·概觀的·折衷的인 方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각각 長·短點이 있으므로 主題의 特性, 採點委員 構成, 採點時間 등의 條件을 고려하여 적절한 方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의 問項形式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資料提示型을 채택하고 있다. 資料提示型은 미리 文章이나 圖表를 내주고 그 資料에 입각해서 글을 쓰게 하는 방식이다. 주로 思考能力을 테스트하는 目的과 機能을 갖는다. 반면에 單獨課題型이란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비교하라’ ‘분석하라’ ‘판단하라’ ‘주장하라’ 등과 같이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單獨課題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爭點에 대하여 正確히 따져 나가는 것인데, 證據 즉 論據가 正確히 제시되어야 한다. 大學의 目的이 專門人의 養成에 있다면 資料提示型의 問項形態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資料提示를 통하여 單獨課題型에 의한 문항도 가능하다고 볼 때 折衷式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5) 論述考查의 應答形態

文敎部가 제시한 受驗生들의 應答形態에 대한 指針에는 다양한 論理的인 陳述이 최대한 許用되도록 권장하는 내용뿐이다. 一線學校에서는 問項反應形態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高麗大學校만이 擴大反應型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擴大反應形態에는 學生들이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創意的으로 생각하고, 問題狀況을 評價할 應 알아야 하며, 자기의 생각을 잘 組織할 應 아는 能力이 필요하다. 이 형태의 반응은 學生 개인的인 知識과 理解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態度와 價値를 나타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採點의 信賴度가 낮아진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制限反應形態는 學生들로 하여금 高價한 情報나 知識을 生産할 應 요구하고, 그러한 再生된 知識의 적절한 組織을 요구하며, 結論을 자기 자신이 충분히 舍理化시켜야 하고, 答의 표현도 자기 자신의 말로 나타낼 應 요구한다. 이 制限反應形態는 상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採點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定型화된 應答를 요구하는 學力考查나 高校教育의 補充을 고려한다면 擴大反應型이 大學의 特殊性과 下級學校의 教育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겠다. 이러한 點에서 擴大反應型이 그 신뢰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채택·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論述考查 採點 方案

(1) 採點準據의 設定

文敎部에서 가장 重要하게 고려하고 있는 指針은 採點의 信賴度와 客觀度의 向上을 위하여 採點要素別로 評價尺을 事前에 만들어 採點基準을 問項末尾에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採點方法과 節次에 대하여 協議와 合意하는 機會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採點委員 全員이 각각 模範答案을 작성,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 採點基準을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각 大學別로 실시하는 것도 좋으나, 地域別로 委員會를 구성하고 研究·검토하여, 각 大學의 採點委員團이 合席하여 地域別 Workshop을 통한 自體 研修를 실시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는 時間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共感帶 속에서 論述考查制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2) 採點委員의 數

採點上의 公正성과 客觀性을 最大限度로 유지하는 것은 論述考查의 成敗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文敎部에서는 答案 1枚當 最少 3명 이상의 採點으로 산술평균을 권장하고 있는데 一線學校에서는 3명의 採點結果를 평균내어 點數化하고 있다. 그리고 한 採點委員이 약 300명 정도를 採點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만일 1명의 採點위원이 300명 정도를 하는 경우는 答案紙 1枚當 5명 정도의 採點委員이 採點하고, 最大値와 最小値를 제외한 中間値 3명의 點數로 平均내어 점수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採點위원 數가 3명이라면 約 100명 이하로 限定하거나, 한 學科 志願者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1組當 採點對象數는 學科에 따른 志願者數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採點方法

文敎部의 지침에 의하면 採點單位에 따라 分析的, 概觀的, 折衷的方法으로 구분하고, 각각 그 장·단점이 있으므로 主題의 特性, 採點委員 構成, 採點時間 등의 條件을 고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分析的方法이란 採點의 基準을 要素制로 分析하여 採點한 다음 綜合하는 方法이므로 미리 模範答案紙를 분석하여 그것에 포함된 採點基準別(전체 조직 : 5

점, 논리적 전개 : 4점, 내용의 다양성 : 4점, 결론의 타당성 : 4점, 표현능력 : 3점)로 점수를 결정한다. 이때의 配點은 評價目標에 대한 反應의 重要度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概觀的 方法은 시험지의 응답의 全體性에 기초를 두고 質的으로 보아 答案內容의 綜合性을 査定하고자 할 때에 有用하다. 특히 수험자의 反應이 分析的으로 査定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受驗者의 反應을 要素別로 分析하지 않고 反應의 全體性이 강조된다. 折衷式 方法에는 앞의 兩者를 혼합하여 보는 것이다.

채점방법에 따라 採點委員數와 採點分割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概觀式 方法을 채택한다면 3명 내지 5명이 낸 점수결과를 平均點數로 환산하지만 分析的 方法을 채택한다면 각 採點委員이 1개 혹은 2개 要素를 담당하여 전문적으로 査定하여야 하므로 각 要素別 點數의 합이 곧 시험지 1매의 點數가 되는 것이다.

(4) 採點點數의 幅

文敎部가 제시한 採點點數의 幅은 辨別力 向上을 위하여 넓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一線學校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므로 배점 20점 중 약 10점 정도의 辨別幅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점수의 폭은 많을수록 大學敎育에 적합한 人間評價를 하는 데 그 영향력이 증대되게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글씨체나 文法 및 철자법 등을 고려하는 문제는 一線學校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原稿用紙 쓰는 法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論述考查 點數의 反映

논술고사의 點數에 대한 文敎部의 見解는 10% 범위 이내에 成績 反映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大學에서는 평균 4%의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10%라는 自律性이 他律的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大學에서는 4% 정도만 享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學生 選拔權의 強化가 自律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이와 주어진 機會를 最大로 活用할 줄 아는 것이 바로 自律化되어 가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大學의 自律은 앞으로 10년, 15년에 걸쳐 長期的으로 遂行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번 機會에 進一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으로써 모름지기 “누가 敎育을 받아야 만 하는가?”에 대한 解答을 大學人들 스스로가 規定할 수 있는 範圍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方案들은 이미 결정된 方案들 중 系列區分의 細分化, 採點委員數의 擴大 및 採點點數의 反映比率 擴大라는 점에서 異議를 제기하고 있다.

V. 結 論

과거 25年間에 걸쳐 7次의 變革을 거쳐 온 大學入學考查制는 과거에 部分的으로 실시해 오던 論述考查制의 附加에 의하여 새로운 變革을 맞이하게 되었다.

論述考查制는 社會的 要求의 反映, 大學의 學生選拔權의 強化, 學生選定의 質的 改善, 初·中·高敎育의 質的 改善 및 學生行動의 綜合的 測定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意義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論述考查制는 高等教育可能人力 選別上의 問題, 客觀性과 信賴性의 問題, 高校生에게 敎科負擔 增加의 問題, 大學의 自律性 기여 정도의 의문, 父母의 社會·經濟的 影響 증대 問題 등 몇 가지의 問題點 등을 해소하는 데 그 기여도가 의문시되는 것도 事實이다.

來年度의 論述考查制는 大系列 出題로 총점에 反映되는 比率은 약 4% 정도이고 點數는 약 20점 정도이나 辨別幅은 10점 정도이다. 問項數는 대부분 1문항이며, 90分 동안에 千字 정도의 分量이다. 問項類型은 資料提示型으로 출제하여, 擴大反應型으로 응답하고, 分析的 方法으로 採點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人의 採點委員들의 採點結果를 平均하여 最終 點數로 定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論述考查 實施를 통해 過去의 入試制度가 내포하고 있는 問題點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論述考查의 系列區分이 細分化되어 大學의 學科別 特殊性을 살려 주며, 採點委員의 數를 擴大하여 그 客觀性을 높이고, 採點點數의 反映比率을 높여 辨別力을 向上하고 大學의 參與權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